

실천적 다원주의 : 마키아벨리에 대한 벌린의 평가를 중심으로*

전 보 림*

• 요 약 •

정치적 영역에서 다원론의 강조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오히려 다원론의 빈곤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정치 사상을 관류하는 가치 다원주의를 음미하는 일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벌린이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를 평가한 방식과 내용을 통해 그가 일관되게 견지했던 다원론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벌린의 연구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떤 인물로 평가되었고 왜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정치적 현실주의’, ‘정치와 도덕’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탐구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사상사 연구의 귀결로 드러난 가치 다원주의의 요체를 밝히고, 오늘날 다원론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이사야 벌린, 다원론, 마키아벨리, 정치적 현실주의, 정치와 도덕

I. 서론

정치적 영역에서 다원론의 강조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오히려 다원론의 빈곤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새롭게 선출된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힘주어 강조했다. 물론 취임 일성(一聲)에서 강조한 통합은 권위주의적 통합이 아니라, 이념과 세대 그리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아우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일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사회통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한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 전북대학교 강사

이러한 현실에서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정치 사상을 관류하는 가치 다원주의를 음미하는 일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벌린에 대한 주요한 연구는 1958년에 옥스퍼드의 치첼리(Chichele) 교수에 취임하면서 강연했던 원고, “자유 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벌린이 구분한 자유의 두 개념은 이후 많은 논쟁을 낳으며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분, 그리고 벌린 자신이 적극적 자유보다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다는 비판 등이 이 부근에 개재되는 논의들이다.¹⁾ 이러한 이유로 ‘자유 의 두 개념’에 관한 내용에 있어 벌린에 대한 세간의 이해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유 의 두 개념” 이외에 벌린의 방대한 저작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사상을 관류하는 다원주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는 잘 연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관찰된다. 그러므로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에 주목하여 그 의의를 드러내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해 보인다. 벌린은 다양한 선(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주장한다. 다양한 가치들은 때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때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기준이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회에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이처럼 벌린은 무엇보다 현실에 정초한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론을 고민할 때, 항상 실천을 먼저 생각하는 일관된 자세는 그의 사상사 전반에 배어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를 ‘실천적 다원주의’라고 명명(命名)함으로써, 그의 실천적 면모를 더욱 부각하고자 한다. 특히 벌린이 르네상스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치사상은 과거와의 진정한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철학적 통찰이자 실천적 다원주의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 글의 관심은 다원론이 오늘날 가질 수 있는 함의에 있다. 즉 벌린이 그의 연구에서 마키아벨리를 평가한 방식과 내용을 통해 벌린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다원론을 드러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벌린의 연구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떤 인물로 평가되었고 왜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정치적 현실주의’, ‘정치와 도덕’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탐구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사상사 연구의 귀결로 드러난 가치 다원주의의 요체를 밝히고, 오늘날 다원론을 재조명

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George Crowder, “Pluralism and Liberalism”, *Political Studies*, Vol. 42(2),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pp.293-305.; Andrew Heywood, 이종은·조현수 옮김, 『현대 정치이론』, 까치글방, 2007, pp.353-362.; John Gray, *Isaiah Berlin: An Interpretation of His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Isaiah Berlin, 박동천 옮김,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14.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Ⅱ.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1. 시대적 배경

마키아벨리(1469~1527)가 살았던 시대의 이탈리아는 대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5개의 도시 국가들(나폴리,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교회)은 자체적인 정치·경제·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 간에는 외교적 수완과 전쟁에 의한 오랜 균형이 유지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들 도시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 및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빈번한 침공에 시달리기도 했다.²⁾ 약소 도시 국가 피렌체의 공화정에서 공직(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제2 서기장)을 수행했던 마키아벨리는 빈번한 외세 개입, 분열된 도시 국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문제에 관해 고심했고, 어떻게 하면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번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마키아벨리의 주요한 관심은 분열된 도시 국가들을 통일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서 위대한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의 명성을 획득하게 만든 모종의 선(善)을 본받아 시초(始初)로 되돌리는 변화가 필요했다.³⁾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시기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흐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마키아벨리를 구성하는 면모들, 즉 외교관, 군주의 조언자, 자유의 이론가, 그리고 피렌체의 역사가라는 마키아벨리의 상(像)에는 공통적으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라는 맥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⁴⁾ 특히 당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선조들이 이뤄낸 빛나는 성취를 조명함으로써 그들의 영광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⁵⁾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선조의 위대함에 자극을 받는 것은 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인 셈이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교회 중심의 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새로운 유형의 지배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종교적 세계관이 정치를 엄격하게 봉인하던 시대의 사고방식을 청산

2) 강정인 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책세상, 2019, p.36.

3)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p.411.

4) 켄딘 스키너, 임동현 옮김, 『마키아벨리』, 교유서가, 2021, p.207.

5) 위의 책, p.174.

해야 하는 흐름이었다.⁶⁾ 마키아벨리는 이들에 주목하여 정치학이란 당위가 아닌 ‘현실에 관한 연구’이며, 국가의 통치에는 종교 및 도덕의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⁷⁾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도시 국가를 통일할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강력한 군주의 유형을 『군주론』에서 제시했다. 『군주론』은 강한 국가 건설을 위해 신생 군주에게 조언하는 형식의 일종의 지침서이다. 이로 인해 마키아벨리는 후일 ‘악의 교사(teacher of evil)’⁸⁾, ‘권모술수의 대가’, ‘마키아벨리아니즘(Machiavellianism)의 창시자’⁹⁾ 등의 오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아니즘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기만, 배신, 거짓말, 살인 등)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 정치 이념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견해들과 달리, 오늘날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¹⁰⁾

2.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논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인물이다. 17~18세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던 시기에 몽테스키외(Montesquieu),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의 사상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19세기 민족주의 시대에 이르러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헤겔(G.W.F. Hegel),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등의 사상가들로부터 마키아벨리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옹호되었다. 국가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결과적으로 근대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¹¹⁾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는 매 시대 새롭게 태어나고, 각 시대는 그를 새롭게 해석할 임무를 떠맡으며,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¹²⁾ 특히 켄틴 스킨너(Quentin Skinner)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악평 뒤에는

6) 셸던 윌린, 강정인·이지운 옮김, 『정치와 비전2』, 후마니타스, 2009, p.18.

7) 박성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철학논총』, 102집, 제4권, 2020, p.508.

8) 20세기의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가 마키아벨리의 냉혹한 모습을 ‘악의 교사’로 부르면서 굳어진 별칭이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비판적 견해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레오 스트라우스, 함규진 옮김, 『마키아벨리』, 구운몽, 2006.

9) ‘마키아벨리아니즘’이란 마키아벨리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흔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일지라도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로 곡해되어, 이기적이고 교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굳어져 왔다.

10) 로베르토 리돌피, 광차섭 옮김, 『마키아벨리 평전』, 아카넷, 2000.; J.G.A. 포카, 광차섭 옮김, 『마키아벨리언 모먼트-피렌체 정치사상과 대서양의 공화주의 전통』, 나남, 2011.; 켄틴 스킨너, 임동현 옮김, 『마키아벨리』, 고유서가, 2021.

11) 강정인·엄관용, 『군주론-강한 국가를 위한 냉혹한 통치론』, 살림, 2007, pp.36-37.

12) 강정인 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책세상, 2019, p.37.

무엇이 있으며, 그 악평은 정당한가와 같은 질문들을 탐구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인 맥락을 살피는 동시에 당대의 세계를 복원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¹³⁾

자율과 종속의 문제는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작을 관류하는 주제이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자율’은 그 자체로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이다. 즉 분열된 도시 국가가 통합된 강력한 군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외세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¹⁴⁾ 1517년 공화정을 옹호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되는 『로마사 논고』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로마 공화정을 그토록 위대한 제국의 반열에 올려두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답은 ‘오직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영토나 부가 증대해왔다’는 것이다.¹⁵⁾ 1520년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로부터 공식적 임무를 부여받아 저술한 『피렌체사』에서도 부패가 엄습한 피렌체의 모습을 통해 자유가 어떻게 훼손되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분석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율’은 군주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타인의 지배 아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인민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관대한 군주보다는 인색한 군주가 더 낫다” “존경받기 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¹⁶⁾는 〈군주론〉의 핵심적인 조언은 군주 개인의 자율이 중요함을 부각하는 언표이다. 왜냐하면 인민에게 사랑받고 인민을 관대하게 대하는 군주보다 그렇지 않은 군주의 경우,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를 대표하는 현실주의 정치사상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정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정치적 결정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과 정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 즉 현실을 초월한 원리·원칙이 아닌 현실 자체에서 정치적 결정을 찾아가려는 사유의 방식이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¹⁷⁾ 이는 『군주론』의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된다.

13) 켄틴 스키너, 임동현 옮김, 『마키아벨리』, 고유서가, 2021.

14) 강정인·엄관용, 『군주론-강한 국가를 위한 냉혹한 통치론』, 살림, 2007, pp.80-81.

15)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p.24.

16)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제4판, 까치, 2022, 제17장.;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성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철학논총』, 102집 제4권, 2020, pp.513-518.

17) 강정인·정승현,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사회과학연구』, 22권 1호, 2011, p.35.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이다.¹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당위와 ‘인간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의 대조를 통해서 표명된 마키아벨리의 입장은 기존의 정치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결과이다. 즉 이전의 정치 철학자들은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지 가상의 정체(政體)에 관해서만 고민했을 뿐, 실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⁹⁾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비판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고, 정치 현실에 실증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조언이다. 자유로운 도시 국가의 번영을 꿈꾸고, 이상이나 당위가 아닌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촉구하는 마키아벨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무엇일까?

조국은 어떤 방법으로 방어되든, 그것이 치욕스러운 방법이든 영광스러운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적절히 방어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자기 조국의 안전이 걸린 문제일 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자비로운가 잔혹한가,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치욕스러운가는 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²⁰⁾

마키아벨리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의 안전이다. 벌린도 적절히 파악했듯이, 『군주론』을 집필할 때도 『로마사 논고』를 집필할 때도 그의 최종 목표는 항상 같았다.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일념 아래 아테네, 스파르타, 특히 로마 공화정을 본보기로 삼아 조국을 지켜내는 방법에 헌신했다. 켄틴 스키너 역시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 사이에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어떻게 위대함에 이를 수 있었는지’에 관해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²¹⁾ 그런 그를 전통적인 해석가들은 도덕을 무시하고, ‘도덕으로부터 정치를 분리한 사상가’로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마키아벨리의 독창성을 잃어낼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말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벌린의

18)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제4판, 까치, 2022, 제15장.

19) 강정인·엄관용, 『군주론-강한 국가를 위한 냉혹한 통치론』, 살림, 2007, p.84.

20)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p.56.

21) 켄틴 스키너, 임동현 옮김, 『마키아벨리』, 고유서가, 2021, pp.119-120.; 두 저작 사이의 논쟁이란 『군주론』은 군주에게 바치는 지침서로서 군주정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로마사 논고』는 명백히 공화정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 두 저작의 관계를 두고 마키아벨리의 비일관성에 대해 비판적 해석을 견지하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두 저작 모두 공화정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집필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의가 모아진다.

평가를 중심으로 그의 독창적인 사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벌린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다원주의적 사유를 조명하고자 한다.

Ⅲ. 마키아벨리에 대한 벌린의 평가

벌린은 철학을 역사적으로 수행하는 사상가이다. 우리의 규범적 사고 범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정초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역사가 철학적 작업에서 부차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벌린의 접근법은 과거의 ‘과거성’을 인정하고, 오래 전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 사고를 통해 이해 가능하다는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즉 과거와의 진정한 교류를 통해 철학적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벌린의 탐구는 한 사상가의 사유를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철학적 핵심 축 하나를 밝히는 구체적 사례이다.²³⁾ 이와 같은 이유로 마키아벨리에 대한 벌린의 평가를 고찰하는 작업은 마키아벨리의 지적 유산을 경험하는 한편 벌린의 철학적 통찰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그나티에프(Michael Ignatieff)가 쓴 전기(傳記), 『이사야 벌린』의 서평에서 박동천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벌린이 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문필과 강연에서 일관되게 고수하는 두 가지 입장은 경험주의와 다원주의이다.”²⁴⁾

1. 정치적 현실주의

벌린은 기독교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비판적 견해를 통해 그의 현실주의를 파악한다. 첫째, 기독교는 게으름(ozio), 나태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이 안에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가를 향상시키려는 정신이 전혀 없다. 둘째, 종교적 덕성은 상처를 복수하기보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능동적인 강인함보다는 수동적인 복종을 중시한다. 셋째, 마키아벨리가 기독교를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이며 정치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 것은 자명하다. 그는 신앙, 겸손, 희생, 복종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일종의 나약함(weakness)의 표현으로 바라봤다. 넷째, 기독교가 원래의 형식으로 유지됐다면 그 신앙 아래에서 공화국들은 더욱 단결되고 용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에서

22) Johnny Lyons, *The Philosophy of Isaiah Berlin*, Bloomsbury Academic, 2020, pp.65-66.

23) Ibid., p.69.

24) 박동천, “악은 ‘열광’에서 시작해 ‘의심’에서 멈춘다!”, 프레시안 뉴스(검색일: 2025.06.28.)

왜곡되면서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했다.²⁵⁾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는 현실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치에서 실패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악’에 불과하다.

이 관점을 연장해서 마키아벨리는 ‘종교란 사회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여겼다.²⁶⁾ 왜냐하면 신이나 자연이 부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필연성과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종교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우주 전체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찾는 것은 르네상스 사상가들에게 당연한 주제였지만,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종교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의 기준은 오로지 사회의 연대나 결속을 얼마나 촉진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뿐이다.²⁷⁾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는 기존의 신생 군주에게 단순히 종교적·도덕적 규범에 구애받지 말고,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²⁸⁾ 정치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익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치 행위에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함이다. 이상주의적인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 마키아벨리는 의학, 건축, 기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실천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공한 이들의 경험을 준거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상주의를 꿈꾸는 지도자들은 파멸의 길을 걸었다. 현실에 존재한 적도 목격된 적도 없는 나라를 상상하고 그것을 역설하는 플라톤식의 주장에는 명확히 반대하는 것이다.²⁹⁾ “천사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상적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³⁰⁾ 벌린은 이를 마키아벨리 철학의 핵심 기반 중 하나로 손꼽는다.³¹⁾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청사진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셈이다.

벌린은 마키아벨리가 냉소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한다는 저속한 방식의 냉소주의자로 마키아벨리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오히려 “고뇌에서 비롯된 사실적이고

25)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p.59–60.

26) Ibid., p.46.

27) Ibid., p.46.

28) 강정인·엄관용, 『군주론-강한 국가를 위한 냉혹한 통치론』, 살림, 2007, p.85.

29) 강정인·정승현,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사회과학연구』, 22권 1호, 2011, p.46.

30)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57.

31) Ibid., p.53.

객관적 묘사”라고 부르는 편이 더 온당하다고 본다.³²⁾ 마키아벨리에게 이상이 있다면, 이탈리아에서 목도한 무질서한 삶을 더 높은 단계로 고양(高揚)시키고, 건강과 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조국의 복지(welfare of the patria)’로 표현되는 이 이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이상이다.³³⁾

2. 정치와 도덕

벌린은 마키아벨리를 매우 이례적인 사상가로 평가한다. 철학자도 법률가도 아니지만, 정치적 전문가이자 위대한 문필가로서 명확한 사상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³⁴⁾ 철학자로서 공인받지 않은 작가의 집필 의도를 두고, 수백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글을 난해하게 쓰지 않았다. 오히려 거의 모든 해석가들은 그의 간결하고 건조한 산문을 칭송한다.³⁵⁾ 마키아벨리는 당시 널리 통용되던 전제들에 대해서 명시적인 수용이나 반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을 포착한 벌린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다양성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본다. 마키아벨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원주의의 창시자 중 하나가 된 셈이다.³⁶⁾ 마키아벨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도덕으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킨 최초의 사상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벌린은 이 단순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평가절하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벌린이 볼 때 마키아벨리 사상의 핵심은 그가 이교적(pagan) 사상과 기독교적 사상을 병치시키는 방식에 있다.³⁷⁾ 그는 두 세계를 나란히 두고, 전자를 기독교의 신성한 도덕보다 더 선호했다. 왜냐하면 이교적 사상이 성공적인 통치자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서 더욱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저마다 궁극적인 여러 목적들이 때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즉 “정의와 자비, 겸손과 비르투, 행복과 지식, 영광과 자유, 위대함과 성스러움이 언제나 일치하거나, 적어도 양립 가능하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³⁸⁾ 벌린이 관찰한 마키아벨리는 이에 관해 ‘무심한 증언’을 할

32) Ibid., p.71.

33) Ibid., pp.71-72.

34) Ibid., p.45.

35) Ibid., p.45.

36) Ibid., p.99.

37) Ibid., p.70.

뿐이다. 그는 단지 “기독교가 천 오백 년 넘게 틀어막아 온 어떠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지만,³⁹⁾ 그 무심한 증언이 드러낸 세계는 결코 담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이 점을 발굴해서 의미를 포착한 벌린에게 기어켄(John Geerken)은 “기존의 지배적 견해를 대체한 가장 뛰어난 연구”로 칭송한다.⁴⁰⁾ 뿐만 아니라 근대 정치사상의 저명한 학자이자 마키아벨리 전문가로 인정받는 켄틴 스키너는 벌린의 독창적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키아벨리와 그의 동시대인들 사이의 차이를, 도덕적 정치관과 도덕과 분리된 정치관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본질적인 대비는 두 개의 다른 도덕 체계, - 경쟁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 사이의 차이에 있다.⁴¹⁾

마키아벨리가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으로부터 정치를 해방한 것이 아니다. 그가 구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이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권능보다 신의 권능을 더 존중”했던⁴²⁾ 로마인들에게 사랑, 자비, 희생, 용서와 같은 기독교 도덕의 이상은 인류의 역사에서 숭고한 의미를 지녀왔다. 종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도덕적 연사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고, 경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개혁가들은 시민들을 쉽게 순응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로마 공화국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신에 대한 외경이 강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런 미덕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실제로 실천한다면 사회를 강하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그는 이탈리아의 분열과 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회를 지목한다.⁴³⁾ 가장 비종교적인 교황, 끝없는 폐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교황청은 이탈리아의 내분과 약화를 초래하는 장본인이다. 조국의 장래를 내다본다면 기독교 도덕에 대한 회의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삶의 방식인 이교(異敎)도의 세계에서 강조하는 가치들, 즉 용기, 활력, 성취, 힘, 강인함, 정치적 영광과 같은 덕목들은 전자와 양립할 수 없는 세계였다.⁴⁴⁾ 왜냐하면

38) Ibid., p.90.

39) Johnny Lyons, *The Philosophy of Isaiah Berlin*, Bloomsbury Academic, 2020, p.74.

40) Ibid., p.72.

41) Ibid., p.70.

42)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p.117.

43) 위의 책, pp.122-125.

44)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58.

인간의 본성상 둘 중 하나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타협하려 들다가 결국 정치적 운명은 우유부단함, 약함, 실패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종교적 덕성이 현실 정치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부단히 강조한다. 즉 기독교의 도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영역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벌린은 해석했다.⁴⁵⁾ 그의 입장에서 이교도적 윤리를 따르는 일은 결코 도덕적으로 괴로운 일이 아니라, 마치 적절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무기들을 꺼내쓰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체계에서 벌린은 마키아벨리의 독창성 두 가지를 포착한다. 첫째, 그는 기독교보다 고대인의 세계관을 거리낌 없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⁴⁶⁾ 고대 이교도 사회에서 이교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독교가 승리한 후 천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공고한 중세의 교회 중심의 질서 속에서 고대인의 세계관을 옹호한 것은 매우 발본(拔本)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배적인 신 중심의 세계관을 희생시키면서 고대 로마의 영웅적 가치와 이상을 재주창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이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조언했다. 이는 기독교 도덕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현실 정치에 필요한 덕목들을 배양할 필요를 역설하는 것이다.

“장래의 군주나 공화정 정부는 정치의 무대에 더 적합한 고전적이고 세속적인 용기, 야망, 영광, 실용적 지혜 등의 덕목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연민, 정직, 친절 같은 기독교적 도덕이나 훗날 데이비드 흄이 ‘수도승적 덕목(monastic virtues)’이라 불렀던 경건, 겸손, 자기 부정 같은 개인 양심의 가치에 과도하게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⁷⁾

마키아벨리는 기독교의 선(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두 세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단, 로마의 이교적 세계를 더 선호하지만,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기독교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⁴⁸⁾ 마키아벨리는 도덕이 무엇인지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 체계가 둘이며, 그중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벌린은 강변한다.⁴⁹⁾

45) Ibid., p.60.

46) Ibid., p.79.

47) Johnny Lyons, *The Philosophy of Isaiah Berlin*, Bloomsbury Academic, 2020, p.66

48) Ramin Jahanbegloo, *Conversations with Isaiah Berlin*, 2nd ed., Halban Publishers, 2007, p.53.

“마키아벨리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전통 도덕의 많은 부분을 비판 없이 유토피아의 영역으로 밀어냄으로써 그 진실을 드러낸 것이다.”⁵⁰⁾

마키아벨리는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이 도덕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⁵¹⁾ 실제 우리가 ‘선’이라 부르는 것과 ‘악’이라 부르는 것이 정치에서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군주의 관후함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군주가 관후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는 사치스럽게 재물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인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군주의 관후함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군주가 그 처신을 교정하려고 하면 곧바로 인색하다는 평판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한 평판에 신경쓰지 말 것을 조언한다.⁵²⁾

마키아벨리가 발가벗은 무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⁵³⁾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하라’는 말로 단순하게 규정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벌린에게는 편협한 오해이다. 마키아벨리에게 도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정치란 본래 “항해나 조각과 같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⁴⁾ 정치적 행위는 문명화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이상은 공동체의 목적과 성격을 통해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정치에는 고유한 목적과 도덕이 있다는 신념, 그것은 기독교의 도덕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벌린의 관찰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키아벨리는 기독교의 도덕과는 전혀 다른 도덕을 옹호했고, 그 도덕은 페리클레스(Pericles)나 스키피오(Scipio),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의 도덕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⁵⁾ 마키아벨리는 기독교 도덕이라는 하나의 도덕을 거절하고, 각각의 궁극적 목적에

49)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75.

50) Ibid., p.99.

51) op. cit., p.60.

52)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제4판, 까치, 2022, 제16장.

53) 켄틴 스킨너,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1』, 한길사, 2005, p.305.

54)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p.66-67.

55) 페리클레스(BC 495~429)는 아테네의 정치가로서 그가 통치하는 30년간 아테네는 비약적인 발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스키피오(BC 235~183)는 로마 공화국의 최고의 장군으로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

맞게 설계된 사회들을 칭송한다. 벌린이 볼 때 이와 같은 세계들, 즉 페리클레스의 세계, 스키피오의 세계, 체사레 보르자의 세계는 기독교의 세계만큼이나 궁극적 목적을 지닌다. 각각이 공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정치 고유의 목적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벌린은 마키아벨리부터 병치된 두 세계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다.⁵⁶⁾ 동시에 더 중요한 초점은 이러한 대비를 통해 ‘다양한 도덕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함의를 읽어낸 것이다.

IV. 벌린의 다원주의 정치사상

1. 일원론의 거부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이다. 여기에서 다문화란 단순히 민족이나 인종 문제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다른 생활양식의 공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요청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많은 경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실제 우리의 삶이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정도의 미개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일정부분 다양한 가치⁵⁷⁾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 경우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일컬을 수도 있지만,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 만큼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때로 가치들이 갈등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비와 정의 가운데 무엇이 우월한 가치인지 우리는 판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의 우열을 비교할 공통의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린의 다원주의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출발선은 가치의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다. 서로 공약불가능한 가치들이 갈등하는 다원적 환경에 대한 ‘인정’인 셈이다.⁵⁸⁾

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최고의 명장으로 꼽힌다. 교황의 아들로 태어나 18세에 추기경이 된 체사레 보르자(1475~1507)는 뛰어난 외교술과 정치 감각으로 군주론의 모델이 된다.

56) Ibid., p.73.

57) 토머스 네이글은 “가치란 행위를 위한 실질적 이유를 제공해주며, 그 때문에 가치들이 일으키는 갈등은 극히 고민스러운 것”으로 논평한다.; 마크 킬라, 서유경 옮김,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 동아시아, 2006, pp.135-136.

벌린의 사상에서 주요한 공박의 대상은 일원론(monism)이다. 일원론은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연장해 실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찾거나 최종적인 해결책을 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에서 저마다 처한 상황과 배경의 고려 없이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왜곡되거나 부족한 이해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일원론은 서구 정치사상의 오래된 철학적 신조, 즉 “모든 가치들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에 정초한다.⁵⁹⁾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은 이 철학적 신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갈등하는 가치들을 하나로 꿰어 낼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어왔다. 이 믿음은 서양의 지성사를 관통하는 일원론적 전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⁶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철학자들은 최종 해결책을 궁구해왔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간의 지성이 미치지 못해서 혹은 언젠가는 발견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원론이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벌린은 수천 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해답이라면 본래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각자가 추구하는 선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될 수 있다는 일원론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설령 전적으로 선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명확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세계라 할지라도 명쾌하고 확실한 해답이란 실제로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은 최종 해답, 모든 것을 포괄하고 영원성이 보장된 단일 체계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돋울 것이다.⁶¹⁾

근대 유럽의 합리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은 외관에 속지 않는 이성적 정신으로 현실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목적을 밝혀낼 수 있다고 믿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 깊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 어느 누구도 — 회의주의자들조차도 — 이 세상에는

58)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라는 개념은 토마스 쿤(Thomas 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용되고 난 후 널리 알려졌다. 쿤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음을 차원을 나누어 설명한다. 본고에서 쓰이는 가치의 공약불가능성은 서로 다른 가치들 간에는 공통의 기준이 없어 가치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령 ‘자유’와 ‘평등’ 가운데 무엇이 우월한지에 대한 비교는 양자 사이의 공통의 잣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59) Isaiah Berlin, 박동천 옮김,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14a, p.146.

60)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 2nd ed., by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b, p.26.

61) Isaiah Berlin, 박동천 옮김, “자유와 두 개념”,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아카넷, 2014b, pp.420-421.

궁극적인 목적들, 그 자체로서 다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목적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었다.⁶²⁾

반면에 다원론(pluralism)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을 관용하고 수용한다. 가치들을 관용하는 풍토에서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갈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론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2. 다원론의 수용

벌린의 다원론은 차이를 전제한다. 차이를 전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기 다른 선택을 관용하는 것이다.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는 한 사회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다. 벌린이 ‘차이’를 중요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년 시절 목도한 폭력의 공포,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전체주의적 사고가 잠식하던 시대와 연관된다.⁶³⁾

유흥림은 벌린의 다원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가치 다원주의는 주관적 감정주의와 구분되고 상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소통에 내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지평을 인정한다. 이러한 도덕 위에 공약 불가능한 가치들이 복수로 존재하고 이들의 위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동의 지침을 판단 내려줄 최고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구체적 상황’ 속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⁶⁴⁾

누군가는 다원론을 견지하는 벌린의 사상에 대해 관용을 지향함으로써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해 무용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동등하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가치들이 경합할 때, 다원론은 아무것도 결정해주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하는 공박이다. 나아가 아무것도 결정해주지 못하니 ‘상대주의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표명도 있다.⁶⁵⁾ 그러나 이는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

62) Isaiah Berlin,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p.87.

63) Michael Ignatieff, *Isaiah Berlin: A Life*, Penguin Random House, 2000, p.24.

64) 유흥림, “이사야 벌린의 현실 감각”, 『정치사상연구』, 제2호(25집), 2019, pp.48-49.

65) Leo Strauss, Helmut schoeck and James W. Wiggins eds., “Relativism”, *Relativism and the Study of Man*, Princeton, 1961.

는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지 못한 비판이다. 왜냐하면 벌린의 강조점은 결정을 인도하는 기준이 초월적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맥락에서 포착된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⁶⁶⁾ 따라서 윤리적 선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다원론을 두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포기하는 태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태도로 다원론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게 되면, 실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즉 갈등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관용하고 기꺼이 기다려주는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도록 만든다.

박동천은 벌린의 다원주의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⁷⁾ 이것 역시 치열하게 경합하여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상태를 기본으로 상정하는 이들에게는 비판의 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은 여전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하나의 유토피아로 보고, 공동체가 그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태도가 짙게 배어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논점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란 가치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이 필연적이고,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해당 공동체에서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reasonable)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⁶⁸⁾ 이 과정에서 일련의 경합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일 것이다. 심지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조차도 타협을 촉구할 수 있다. 정치적 쟁점은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말라던 군주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실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덕성의 옹호라고 봐야 마땅할 것이다.

벌린은 그의 에세이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서구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의 저작이 다원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강조한다. 마키아벨리는 기존의 도덕적 통일성을 깨뜨리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벌린은 마키아벨리를 통해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66) 벌린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인 ‘현실감각’에 대해 자세히 논한 바 있다.: Isaiah Berlin, “The Sense of Reality”, *The Sense of Reality*,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pp.1-49.

67) 박동천, “이사야 벌린: 다원적 자유주의의 실천”, 『현대정치의 위기와 비전』, 아카넷, 2020, p.250.

68)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한다. “그는 나에게 가치체계들 - 예를 들면, 로마인의 비르투와 기독교인의 자비 - 은 저마다 그 자체로 충분하며, 다른 시대의 가치체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⁶⁹⁾ 마키아벨리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벌린은 다원주의 사상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발견한 셈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마키아벨리와 그에 대한 벌린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다. 즉 절대적인 도덕이나 단일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도덕들이 서로 경쟁하며 때로 조화를 이룰 수도 때로 충돌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다원주의의 요청’이다.

V. 결론

마키아벨리는 오랜 시간 상반된 평가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논쟁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사안의 유효한 진실을 보라고 촉구하는 사상가”일 것이다.⁷⁰⁾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보라는 것이다. 이런 촉구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당위’를 금과옥조 삼아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 ‘현 상태’를 직시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 현실의 문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가변성을 수용하려는 자세이다. 실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란 대략적인 것들은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이 완전하게 실행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관점은 원리나 원칙을 미리 세워 놓고, 그것을 사안에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이 배제되어야 얻을 수 있는 안목인 셈이다.

이 안목은 벌린의 다원론 전반과 상통하는 관점이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저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합할 때, 가치들의 우열을 가려줄 일원적인 기준은 없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원론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을 목도한다. 비록 벌린이 고뇌했던 20세기의 폭력의 세기는 지나갔지만 젠더, 노사, 세대, 이념 등 사회 내부의 다차원적 갈등에 더해 그 갈등들이 중첩되고 확산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현대사회가 불가피하게 다원적이며 모든 사회가 애당초 다원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원론의 의미를 음미하는 것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필요한 작업이다.

69) Michael Ignatieff, *Isaiah Berlin: A Life*, Penguin Random House, 2000, p.284.

70) 스티븐 스미스, 오숙은 옮김, 『정치철학』, 문학동네, 2018, p.206.

그 어느 때보다 확실성을 갈망하는 시대이다.⁷¹⁾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와 증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큰 힘을 얻는다. 자연 과학의 영역에서 증거와 증명은 해당 영역의 진보(進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과학 기술이 우리 삶의 전반을 잠식하는 세상에서 정치 영역에도 이와 같은 확실성이 담보된다면, 비약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눈부신 낙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사회 과학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진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퇴보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론이 갈등 해결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면, 정치가 해당 맥락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발생한다. 정치의 영역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정해야 문제의 상황에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치학이란 본래 인간에 관한 이해가 그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엄관용, 『군주론-강한 국가를 위한 냉혹한 통치론』, 파주: 살림, 2007.
- 강정인·정승현,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사회과학연구』, 22권 1호, 2011.
- 강정인 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서울: 책세상, 2019.
- 김민혁·조대근,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7권 제2호, 2024.
-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안선재 옮김,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2003.
- _____,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제4판, 서울: 까치, 2022.
- _____, 김경희·신철희 옮김, 『피렌체사』, 서울: 박영사, 2024.
- 마크 킬라 외, 서유경 옮김, 『이샤야 벌린의 지적 유산』, 서울: 동아시아, 2006.
- 레오 스트라우스, 함규진 옮김, 『마키아벨리』, 서울: 구운몽, 2006.
- 로베르토 리돌피, 박차섭 옮김, 『마키아벨리 평전』, 서울: 아카넷, 2000.
- 박성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철학논총』, 102집 제4권, 2020.
- 박동천, “이샤야 벌린: 다원적 자유주의의 실천”, 『현대정치의 위기와 비전』, 서울: 아카넷, 2020.
- 셀던 윌린, 강정인·이지운 옮김, 『정치와 비전2』, 서울: 후마니타스, 2009.
- 스티븐 스미스, 오숙은 옮김, 『정치철학』, 파주: 문학동네, 2018.
- 앤드류 헤이우드, 이종은·조현수 옮김, 『현대 정치이론』, 서울: 까치글방, 2007.
- 유홍림, “이샤야 벌린의 현실 감각”, 『정치사상연구』, 제2호(25집), 2019.

71) 벌린은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를 해석하거나 무효화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확실성을 갈망하는 태도의 증거로 보고 있다. 사회공학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장치로서 벌린의 자유주의를 강조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민혁·조대근,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7권 제2호, 2024, pp.229-261.

- 이샤야 벌린, 박동천 옮김,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아카넷, 2014a.
- _____, 박동천 옮김, 「자유의 두 개념」,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2014b.
- 장세룡, “존 그레이의 포스트 자유주의: 반계몽주의와 가치다원주의”, 『계명사학』, 제17집, 2006.
- 전보람, 『이샤야 벌린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퀸틴 스키너,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1』, 파주: 한길사, 2005.
- _____, 임동현 옮김, 『마키아벨리』, 파주: 고유서가, 2021.
- J.G.A. 포각, 각차섭 옮김, 『마키아벨리언 모먼트-피렌체 정치사상과 대서양의 공화주의 전통』, 파주: 나남, 2011.
- Berlin, Isaiah, “The Originality of Machiavelli”, *Against the Current*,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a.
- _____, *The Roots of Romanticism*, 2nd ed., by Henry Har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b.
- _____, “The Sense of Reality”, *The Sense of Reality*, 2nd ed., Henry Har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Crowder, George, “Pluralism and Liberalism”, *Political Studies*, Vol. 42(2), University of California, 1994.
- Gray, John, *Isaiah Berlin: An Interpretation of His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Ignatieff, Michael, *Isaiah Berlin: A Life*,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00.
- Jahanbegloo, Ramin, *Conversations with Isaiah Berlin*, London: halban publishers, 2007.
- Lyons, Johnny, *The Philosophy of Isaiah Berli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0.
- Strauss, Leo, Helmut schoeck and James W. Wiggins eds., “Relativism”, *Relativism and the Study of Man*, Princeton, 1961.
- 박동천, “악은 ‘열광’에서 시작해 ‘의심’에서 멈춘다!”, 프레시안 뉴스 (검색일: 2025.06.28).

【 Abstract 】

Practical Pluralism: Isaiah Berlin's Evaluation of Niccolò Machiavelli

Jeon, Boram

Although the emphasis on pluralism in the political sphere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political polarization has paradoxically been exacerbated by a deficiency of pluralism. In light of this reality, it is meaningful to contemplate the value pluralism that undergirds the political thought of Isaiah Berl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Berlin's consistent commitment to pluralism by examining his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of Niccolò Machiavelli. To this end, the paper first outlines the central ideas of Machiavelli's political philosophy. It then explores Berlin's evaluation of Machiavelli, focusing on the themes of "political real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rality" in order to understand why Berlin arrived at such an assess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articulate the essential features of Berlin's value pluralism as it emerges from his intellectual engagement with the history of ideas, and to argue for the continued relevance of pluralist thinking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ontemporary political discourse.

Key Words : Isaiah Berlin, Pluralism, Niccolò Machiavelli, Political Realism, Politics and Morality

• 논문투고일 : 2025년 6월 28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15일